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2. 14.(화) 11:00 2. 15. (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2. 14.(화) 09: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책임자 과 장 남현수 (044-201-1531)	담당자 사무관 정성문 (044-201-1539)	

20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 2월 15일부터 참가자 모집, 3월 2일부터 운영 개시 -

주요 내용

- 2월 15일부터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 신청 접수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신청

○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보성 등을 시작으로 프로그램 본격 개시

□ 전국 102개 시군에서 약 130개 운영마을 선정, 900가구 모집 예정

* ('22) 95개 시군, 119개 마을, 882가구 참가(이 중 125가구, 14.2% 농촌 전입)

○ 지난해보다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체계적인 준비·실행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를 2월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가기’(이하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가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하였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참여형에 참여한 박○○씨는 ‘살아가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팀원으로 만난 김○○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유희시설을 활용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 ‘농촌에서 살아가기’ 설문조사 결과(참가자 590명, 운영마을 107개, '22.10)

○ 참가자, 운영마을 모두 귀농귀촌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 참가자 성과 : 지역 정보 습득(52%) > 지역 이해(24) > 인적 네트워크 형성(19) 순

- 운영마을 성과 : 지역 활력회복(33%) > 인구유입(33) > 마을수익 창출(17) > 일손부족 해결(15) 순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102개로 지난해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운영 마을도 13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4일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47개 시군에서 51개이며, 나머지 시군(55개)도 다음 달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운영마을 선정 현황(2.14일 기준) >

(단위: 개)

구 분	합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참여 시군	102	1	9	11	11	13	21	21	13	2
마을 선정한 시군	47	-	4	4	7	5	12	9	6	-
마을 선정 예정 시군	55	1	5	7	4	8	9	12	7	2
선정된 운영마을	51	-	4	5	7	5	13	10	7	-

* 상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확인 가능

‘살아가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나뉘며, 특정 품목 재배나 활동에 특화된 마을 운영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에서 살아가기’ 유형

- 귀농형 :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 활동을 지원(일반, 특화: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 귀촌형 :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일반, 특화: 농촌유학 연계형, 중심지 거주형)
- 프로젝트참여형 :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 제공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실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하여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참여 시군(102개) 명단
2.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 신청 방법
3.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 주요 질의응답
4. 2022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붙임1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참여 시군(102개) 명단

시·도	시·군
울 산 (1)	울주
강 원 (9)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춘천, 평창, 홍천, 횡성
충 북 (11)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충주, 청주
충 남 (11)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홍성
전 북 (13)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 남 (21)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경 북 (21)	경주, 고령, 구미,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경 남 (13)	고성, 거창, 김해,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의령, 창녕, 창원, 하동, 함양, 함천
제 주 (2)	서귀포, 제주

붙임2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 신청 방법

STEP 01

농촌에서 살아가기 접속 방법



귀농귀촌 누리집 회원 가입을 한 후 '살아가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마을의 특색,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STEP 02

농촌에서 살아가기 신청 방법



'상세보기' 화면에서 내 숙박할 객실과 기간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자 본인과 운영자의 핸드폰으로 신청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STEP 03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 선정절차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날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STEP 04

농촌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 참가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된다.

Q1.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회원 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가기'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첫 참가자 모집은 2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 동시 최대 3곳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퇴소시(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 당해 연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ip) 회원 가입 시 귀농귀촌 관심지역·분야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지역의 모집 계획이 있을 경우 신청일 시작 전에 해당 시군에서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Q2. 참가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3월 2일부터 준비된 마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운영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작일이 다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참가자 요건이 있나요?

A.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①만 18세 이상, ②동(洞)지역 거주자(직업군인 예외) ③'23년 최초 참가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결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마을별로 별도의 요건(연령 상한 등)을 정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 내 마을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프로젝트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 가능)

Q4. 신청자 중 참가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신청하신 운영마을에서 전화·영상면접 등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신청시 제출하신 참가계획서를 기반으로 귀농귀촌 준비정도, 프로그램 참여의지, 귀농귀촌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Q5. 프로그램 참가는 운영마을 1곳만 가능한가요?

A. 6개월 내에서 2개 마을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 기간은 유형별로 상이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서 운영마을과 협의·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전남 ○○마을 3개월 참가자로 선정되어 참가한 후 경북 ○○마을 참가 신청 및 확정된 경우 최대 3개월 추가 참가 가능

Q6. 참가자 연수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마을에서 제공하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일자리 참여 포함)을 이수하면, 시군에서 매달 프로그램 수행여부 확인 후 연수비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마지막 달의 연수비는 만족도조사를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니 프로그램 종료 전 반드시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연수비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세율 적용으로 8.8% 차감 지급됩니다.

Q7. 참가자가 입소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A. 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용품은 지참하실 필요가 있으며, 마을에서 식사 및 차량운행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Q8. '22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는데, 올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가대상은 '23년 최초 참가자로, '22년 참가이력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귀농귀촌 준비정도, 참가의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군 운영협의체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최우수상 【형성 산채마을】 (귀농형)  	▶ (운영기간·참가자) 4~10월(6개월) / 총 6가구 10명 / 전입 4가구 8명 ▶ (프로젝트) 'ABC 귀농귀촌 교육'이라는 주제로 '살아보기'를 진행,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Agriculture), 사업(Business), 교류(Connect) 중심의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가구(팀)별 텃밭(각 165㎡) 및 공동경작지(1만㎡) 운영, 수확·판매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농업의 이해도를 높임 - 특히, 마을에서는 개인의 관심사항에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1:1 멘토를 지정 운영했으며, 마을축제 운영지원, 농촌체험 진행, 농가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지원 ▶ (주요성과) 직접 생산한 옥수수, 파리고추 등을 수확하여 농협·유통법인, 온라인,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 29백만원의 매출 성과 ▶ (참가자사례) 4가구(8명)가 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성○○씨(65세)는 인근 사찰의 텀플스테이 팀장으로 취업하여 귀촌
프로젝트참여형 참가팀 최우수상 【제천 덕산누리마을 '뚝딱이들'팀】  	▶ (운영기간·참가자) 4~10월(6개월) / 4명 / 전입 3명 ▶ (프로젝트) 마을 내 목공방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 농촌 마을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에 필요한 목공품을 주문받아 제작·납품하고 노후화된 집·가구 등을 수리하며 목공방 직접 운영 - 목공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 체형 ▶ (주요성과) 마을 도서관, 지역 관공서에 북스탠드 등 목공품을 제작·납품하여 7백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림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농촌지역에서의 창업 및 정착 가능성 확인 ▶ (참가자사례) 박○○씨(32세)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팀원으로 만난 김○○씨(37세)와 함께 마을에 남아 목공방을 계속해서 운영 중임